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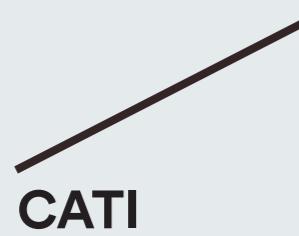
---

제97차 CATI조사

# 여론조사꽃

## 정례여론조사

### 보고서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7.4 40.2 24.2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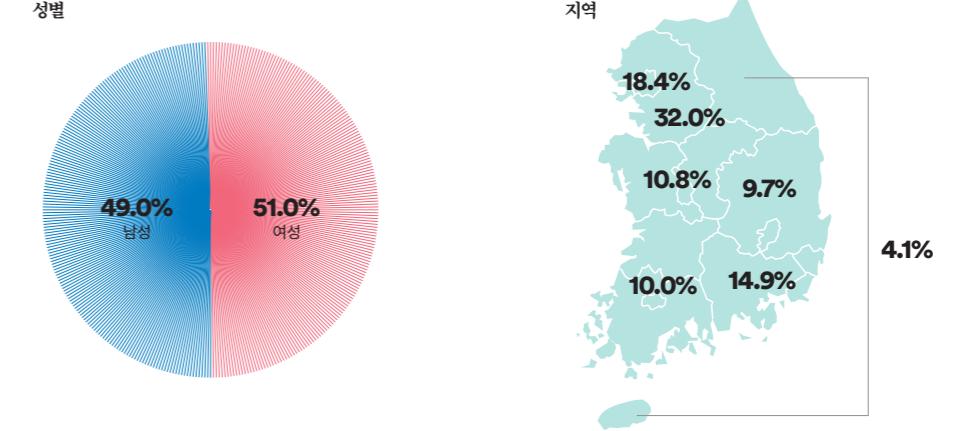
#### CATI 조사개요

모집 단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5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8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8)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1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4.0% [총 통화시도 7,223명]
조사기간	2025년 1월 3일 ~ 1월 4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WWW.  
FLOWERRESEARCH.  
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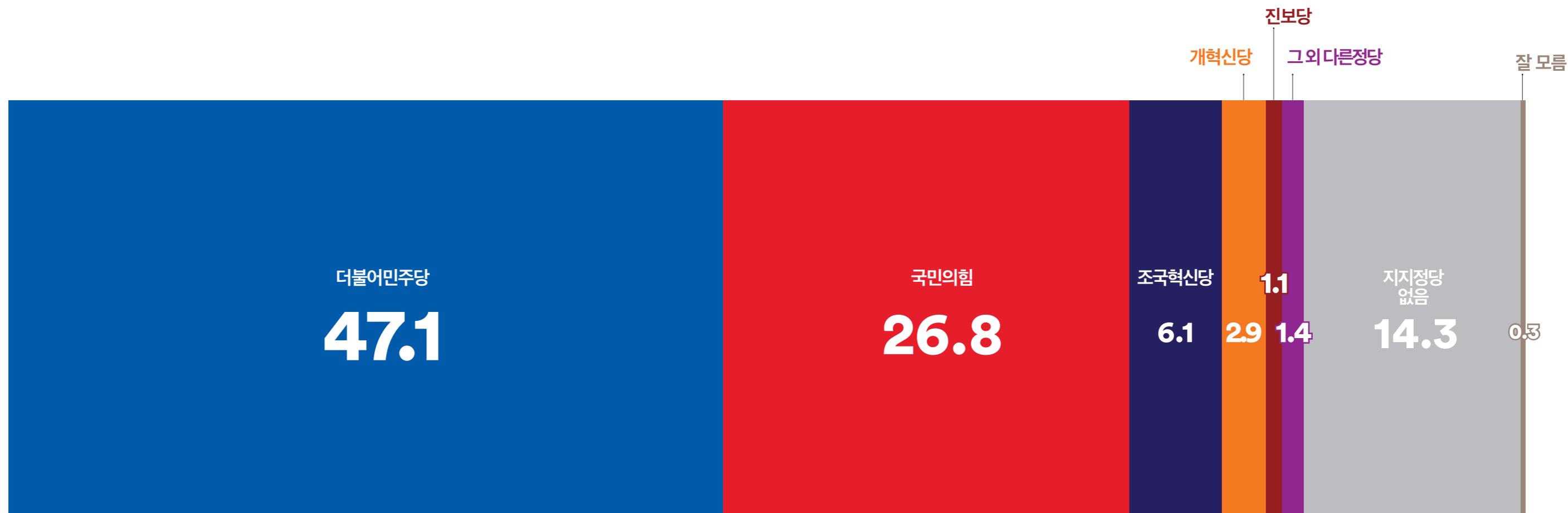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15	100.0	1015	100.0	1.00
성별	남성	497	49.0	503	49.6
	여성	518	51.0	512	50.4
연령	18~29세	158	15.6	158	15.6
	30대	152	15.0	153	15.1
	40대	177	17.4	178	17.5
	50대	204	20.1	198	19.5
	60대	175	17.2	178	17.5
	70세이상	149	14.7	150	14.8
지역	서울	187	18.4	190	18.7
	인천경기	325	32.0	327	32.2
	대전세종충청	110	10.8	110	10.8
	광주전라	102	10.0	98	9.7
	대구경북	98	9.7	98	9.7
	부산울산경남	151	14.9	150	14.8
	경원제주	42	4.1	42	4.1



본 조사 결과는 표본조사사인으로 걸맞은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군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cut-off: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값은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자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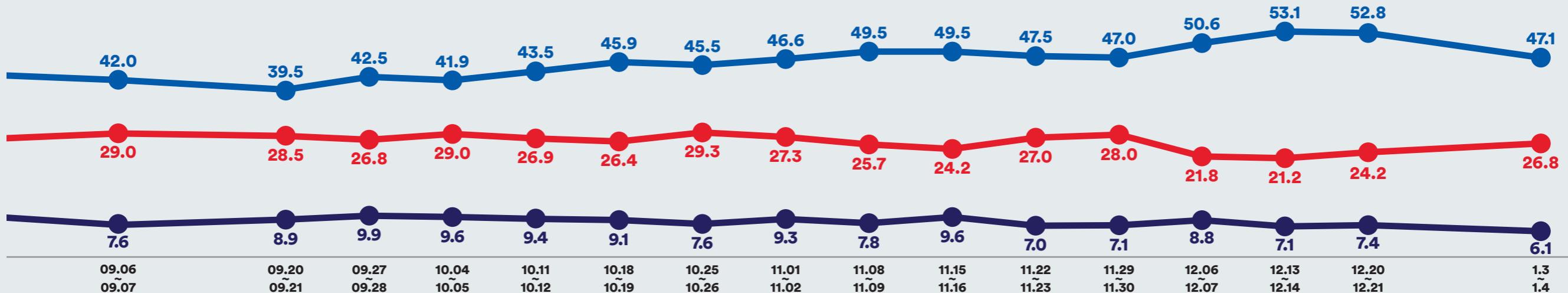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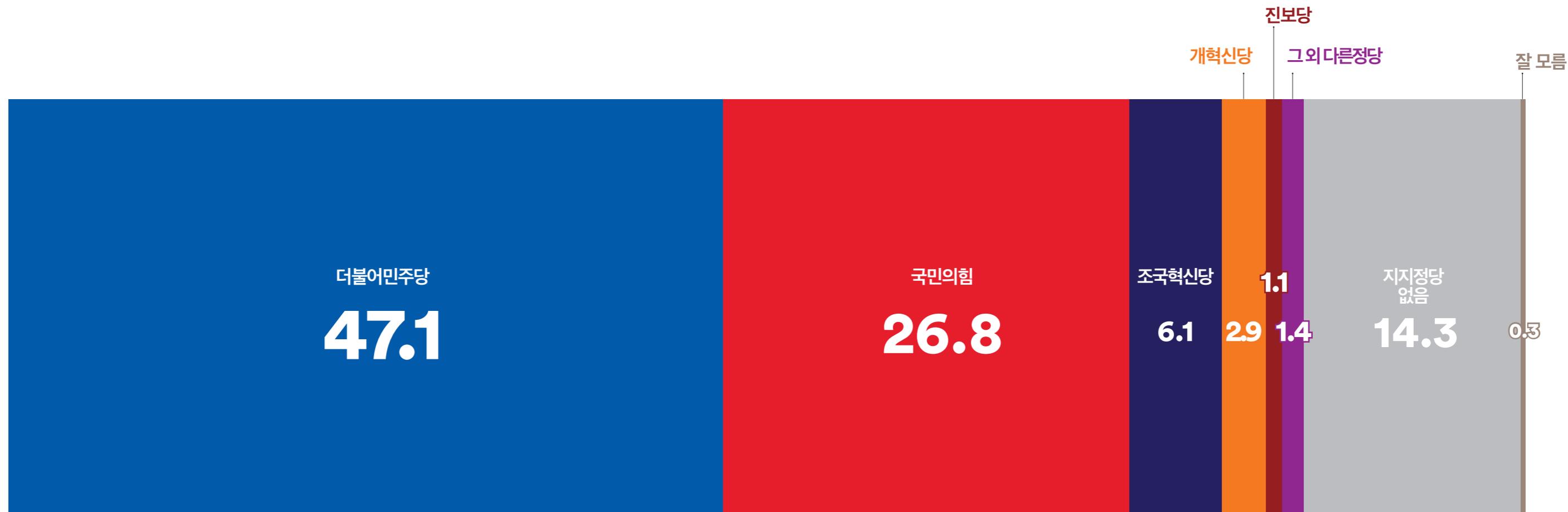
96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5.7%p 하락, '국민의힘' 2.6%p 상승, '조국혁신당' 1.3%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20.3%p (지난 조사: 28.6%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26.4%p(지난 조사: 36.0%p)

주차별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우세했고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오차범위 내 앞선 남·녀 모두, 진보·중도층 및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60대 응답층 오차범위 내 앞선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 연령

## 이념성향

## 권역

18-29세	42.7	17.0	31.4
30대	45.4	19.0	7.0 7.8 17.6
40대	61.2	14.0	7.3 11.7
50대	54.6	23.1	8.2 8.9
60대	43.2	36.7	7.0 10.2
70세이상	31.1	53.5	8.2

진보	75.5	11.3	5.9
중도	52.5	20.0	5.9 16.3
보수	13.5	64.9	12.8
잘모름	29.6	24.7	36.7

## 성별

남성	44.5	27.8	5.9 15.2
여성	49.6	25.8	6.4 13.5

서울	51.7	24.3	6.9 6.6 9.2
인천·경기	49.3	23.1	7.6 15.7
대전·충청·세종	45.9	29.8	7.2 13.0
광주·전라	72.9		11.2 5.3
대구·경북	22.5	52.9	18.4
부산·울산·경남	37.8	33.0	20.4
강원·제주	41.9	28.6	20.5

##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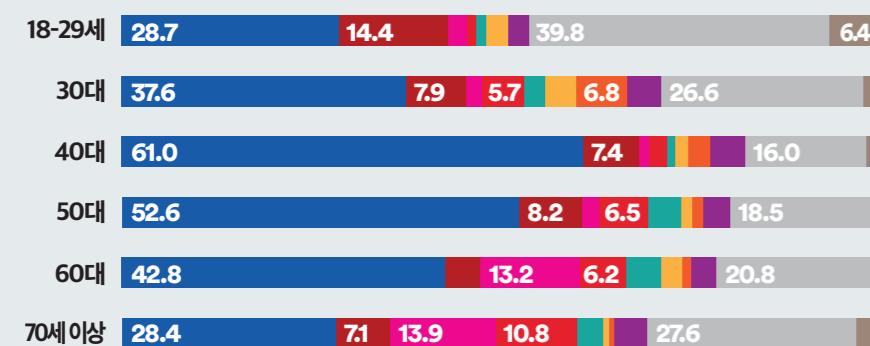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홍준표' 대비 우세(격차: 34.6%p)

남성층에서는 '이재명' 40.0%, '없다' 24.0%, '홍준표' 10.8% 순  
여성층에서는 '이재명' 45.5%, '없다' 24.7%, '한동훈' 6.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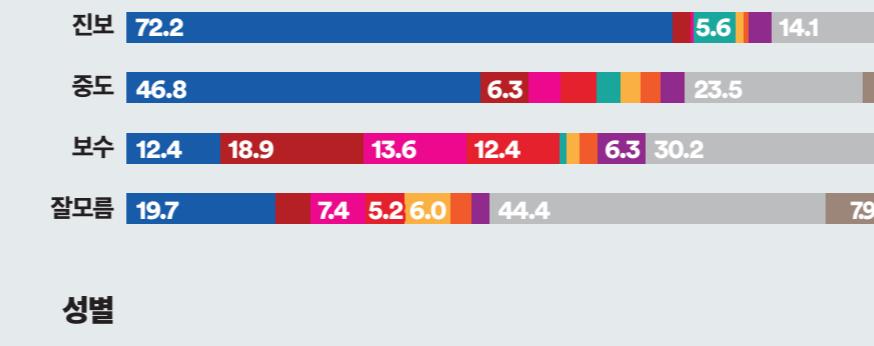
모든 권역 및 30대 이상 응답층에서 '이재명'이 앞서거나 우세  
18-29세 응답층에서는 '없다' 39.8%, '이재명' 28.7%, '홍준표' 14.4% 순  
18-29세 남성층에서는 '없다' 44.4%, '홍준표' 22.6%, '이재명' 16.4% 순  
18-29세 여성층에서는 '이재명' 41.6%, '없다' 35.0%, '홍준표' 5.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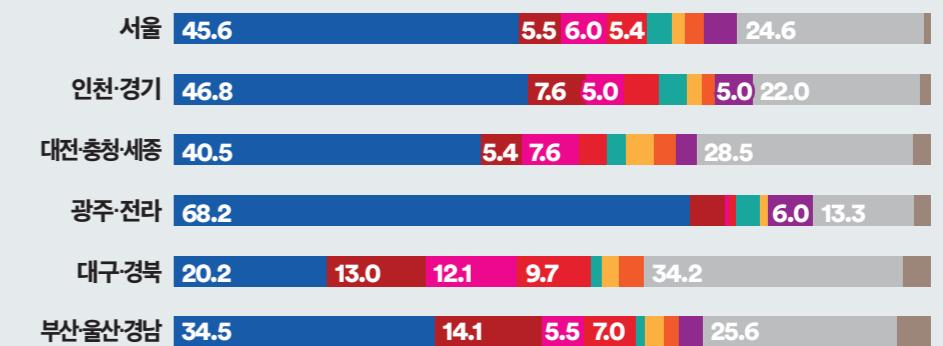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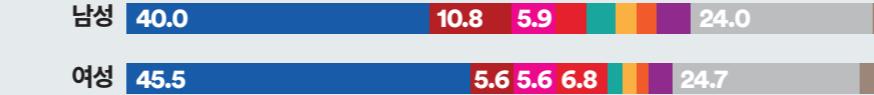
## 이념성향



##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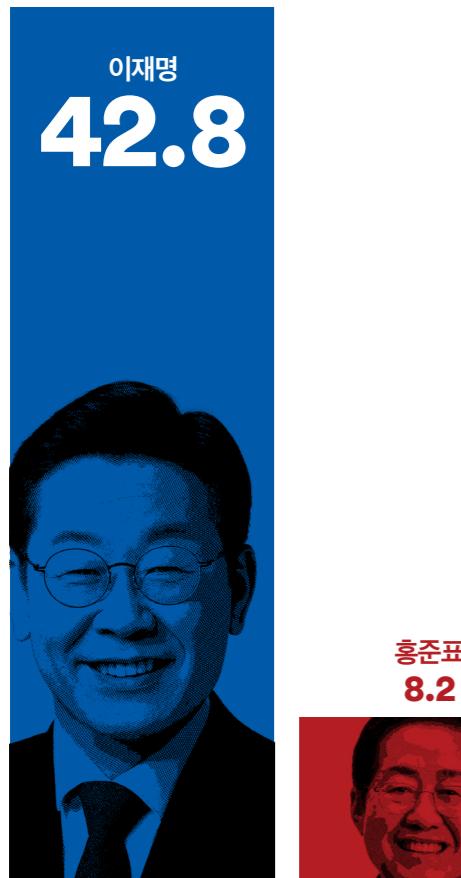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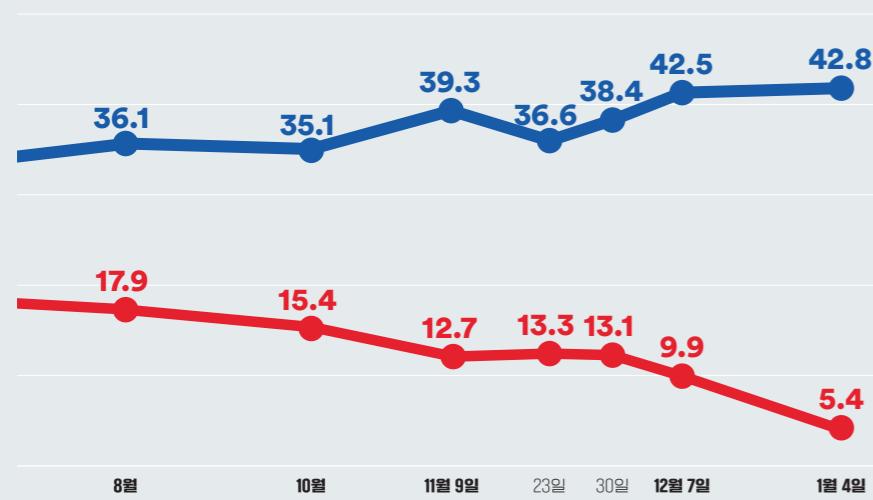
■ 이재명 ■ 홍준표 ■ 오세훈 ■ 한동훈 ■ 김동연  
■ 안철수 ■ 이준석 ■ 그 외 다른인물 ■ 적합한 인물 없음 ■ 잘 모름

##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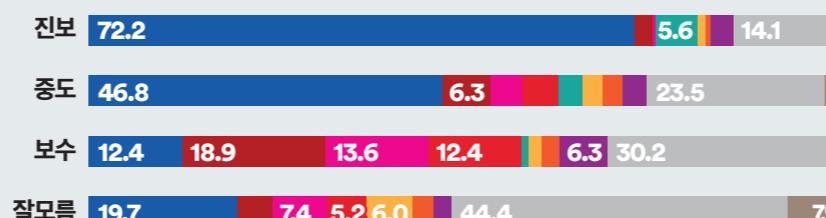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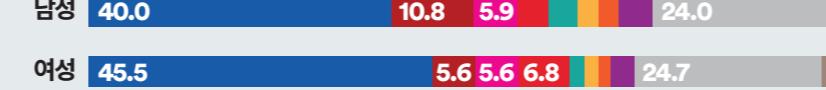
##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 이재명 vs 한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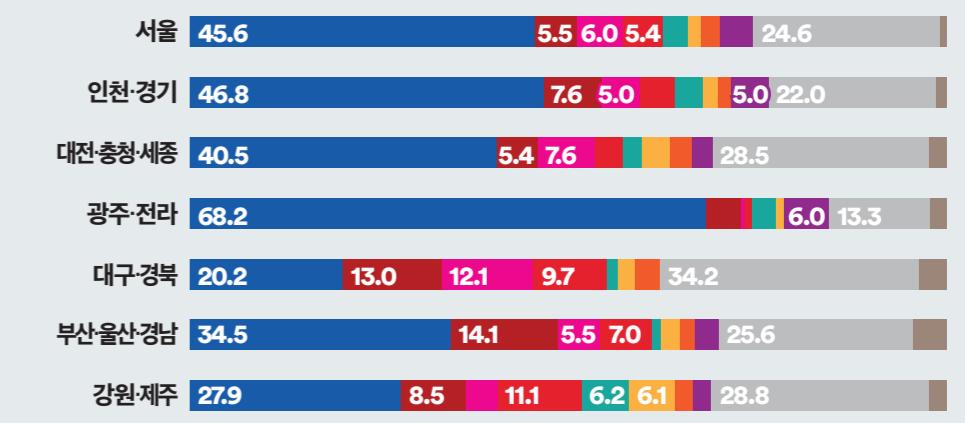
## 이념성향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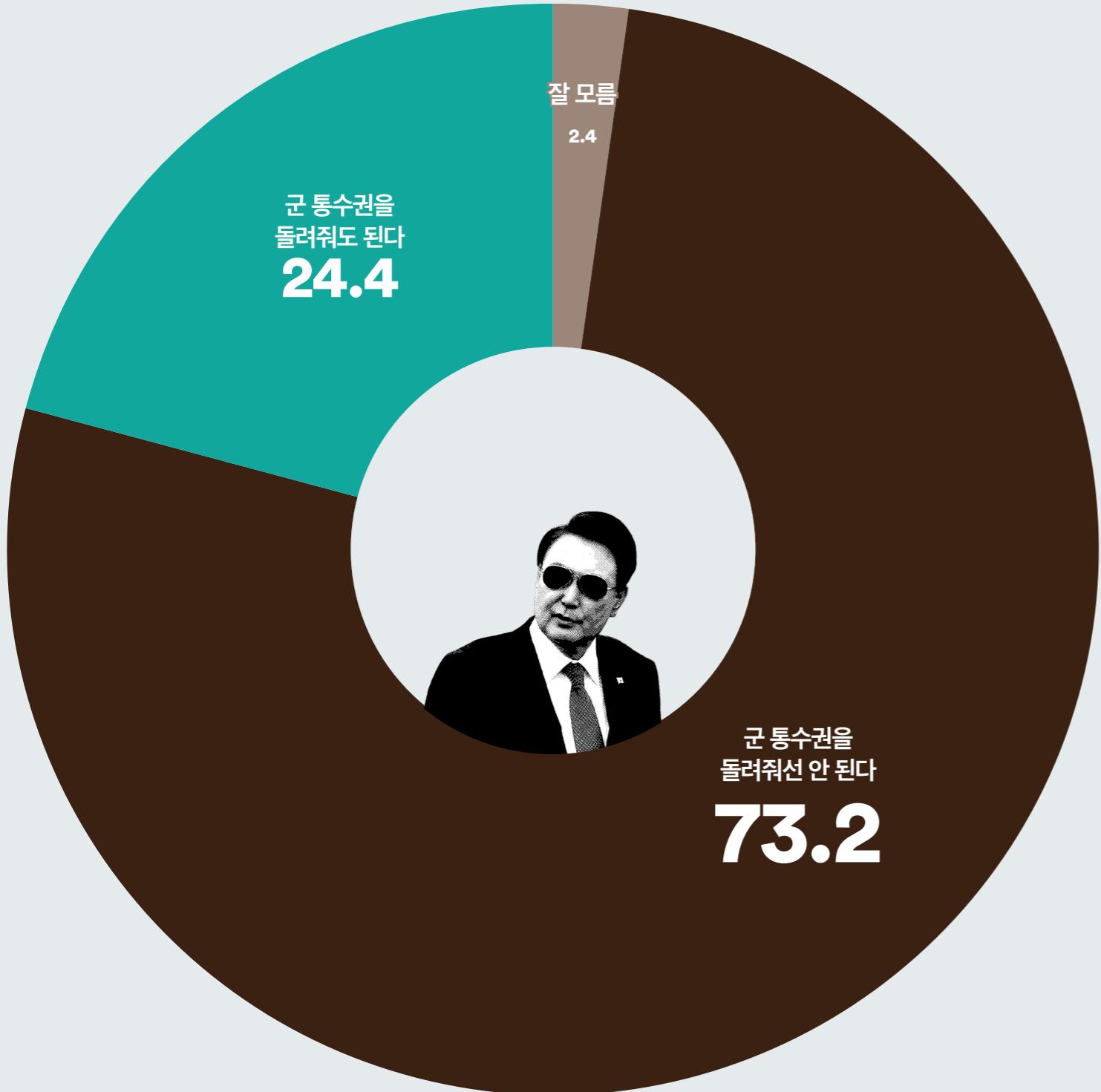


## 권역



■ 이재명 ■ 홍준표 ■ 오세훈 ■ 한동훈 ■ 김동연  
■ 안철수 ■ 이준석 ■ 그 외 다른인물 ■ 적합한 인물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에게 군통수권을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윤석열에서 군 통수권을 '돌려줘서는 안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간 격차: 48.8%p)

모든 권역,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돌려줘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윤석열 복귀시 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3.1%)이 '돌려줘선 안된다'라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75.6%), 보수층(54.1%)은 '돌려줘도 된다'고 응답해 다른 응답층과 차이를 보임

## 연령

18-29세	17.6	79.2
18-29남	26.9	70.0
18-29여	7.7	88.9
30대	16.0	82.7
40대	12.8	87.2
50대	23.5	74.7
60대	34.1	64.7
70세이상	43.9	48.5

## 이념성향

진보	5.1	94.6
중도	19.0	78.8
보수	54.1	42.0
잘 모름	24.0	70.9

## 성별

남성 72.7

여성 25.6

여성 73.7

여성 23.3

##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7.3
국민의힘	75.6
조국혁신당	100.0
개혁신당	9.9
진보당	25.1
그외다른 정당	19.5
지지정당없음	15.1

## 권역

서울	20.6	79.4
인천·경기	22.3	75.6
대전·충청·세종	25.2	67.8
광주·전라	10.9	89.1
대구·경북	45.6	49.9
부산·울산·경남	28.0	69.4
강원·제주	26.8	70.8

잘 모름 73.8

돌려줘도 된다 26.2

돌려줘도 된다      돌려줘서는 안된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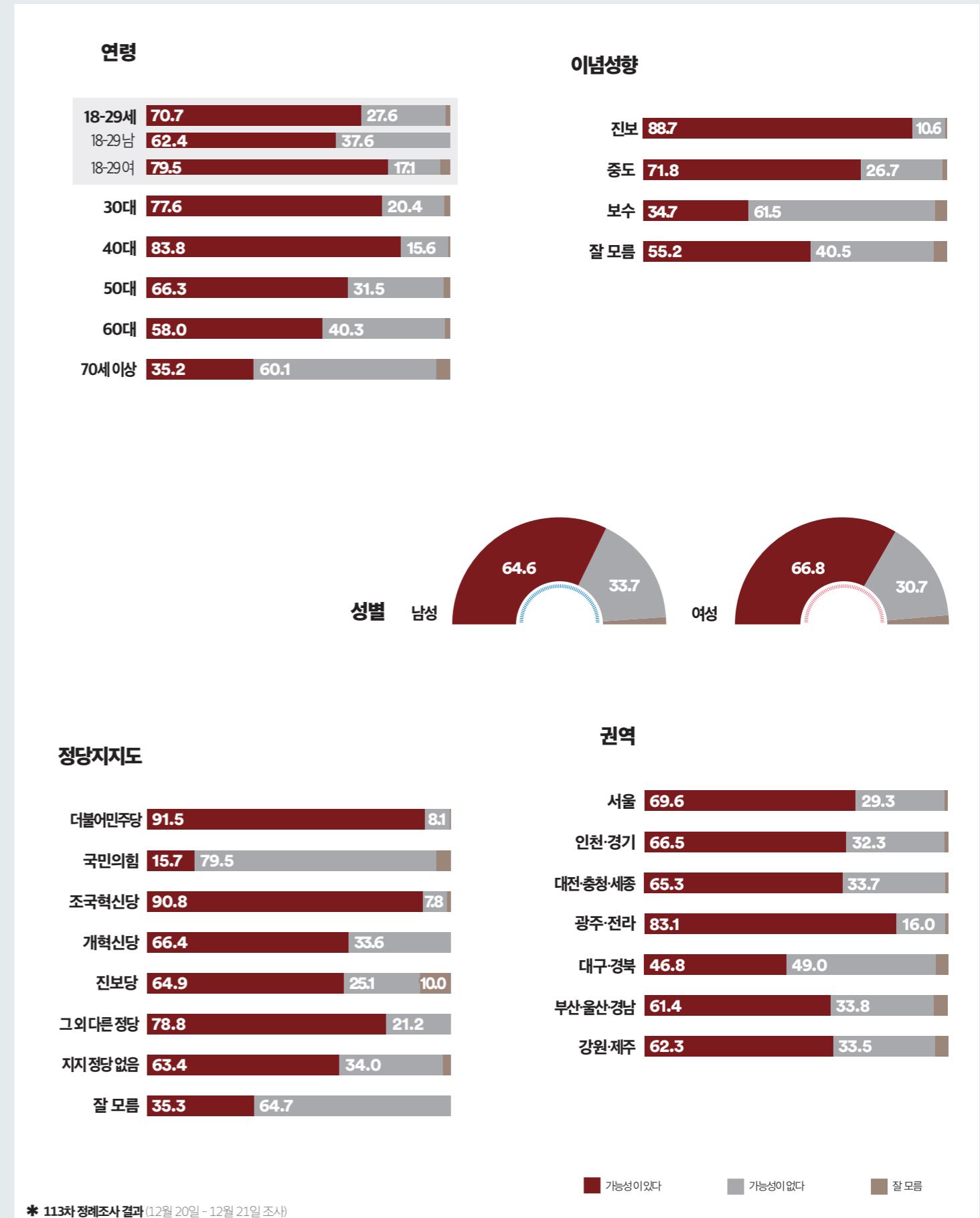
비상계엄

##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

Q.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비상계엄을 또다시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기각시 '비상계엄을 다시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60대 이하 모든 연령층과 모든 성별, 진보층·중도층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를 보임



Q. 최상복 권한대행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회 봇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봇 3인 모두  
임명해야 한다

57.1



권한대행의 판단으로  
1명은 유보해도 된다

29.2

잘모름  
13.8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최상복 권한대행이 국회 봇 3명 모두 임명해야 한다'고 응답(격차: 27.9%p)

두 응답이 팽팽한 70세 이상 응답층과 TK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과 권역에서 '3명 모두 임명'의견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1명은 유보해도 된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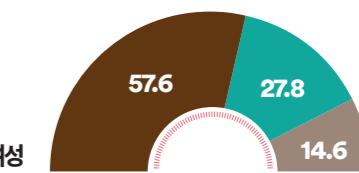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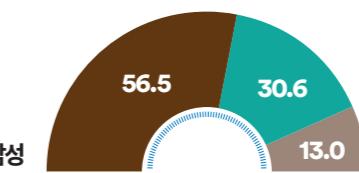
### 연령

18-29세	51.7	28.8	19.5
18-29남	42.8	40.5	16.7
18-29여	61.1	16.4	22.5
30대	57.7	28.8	13.5
30남	49.8	34.0	16.2
30여	66.5	23.0	10.5
40대	71.2	21.7	7.0
50대	63.5	25.8	10.7
60대	55.2	33.0	11.8
70세이상	38.8	38.6	22.6

### 이념성향

진보	83.8	10.8	5.4
중도	60.9	27.7	11.4
보수	29.6	50.1	20.3
잘 모름	34.7	32.5	32.7

### 성별



###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3.6	12.1	
국민의힘	16.5	56.8	26.8
조국혁신당	87.6	10.8	
개혁신당	33.9	61.1	
진보당	87.3	12.7	
그외다른 정당	65.6	14.0	20.4
지지정당없음	35.4	36.7	27.9
잘모름	61.6	38.4	

###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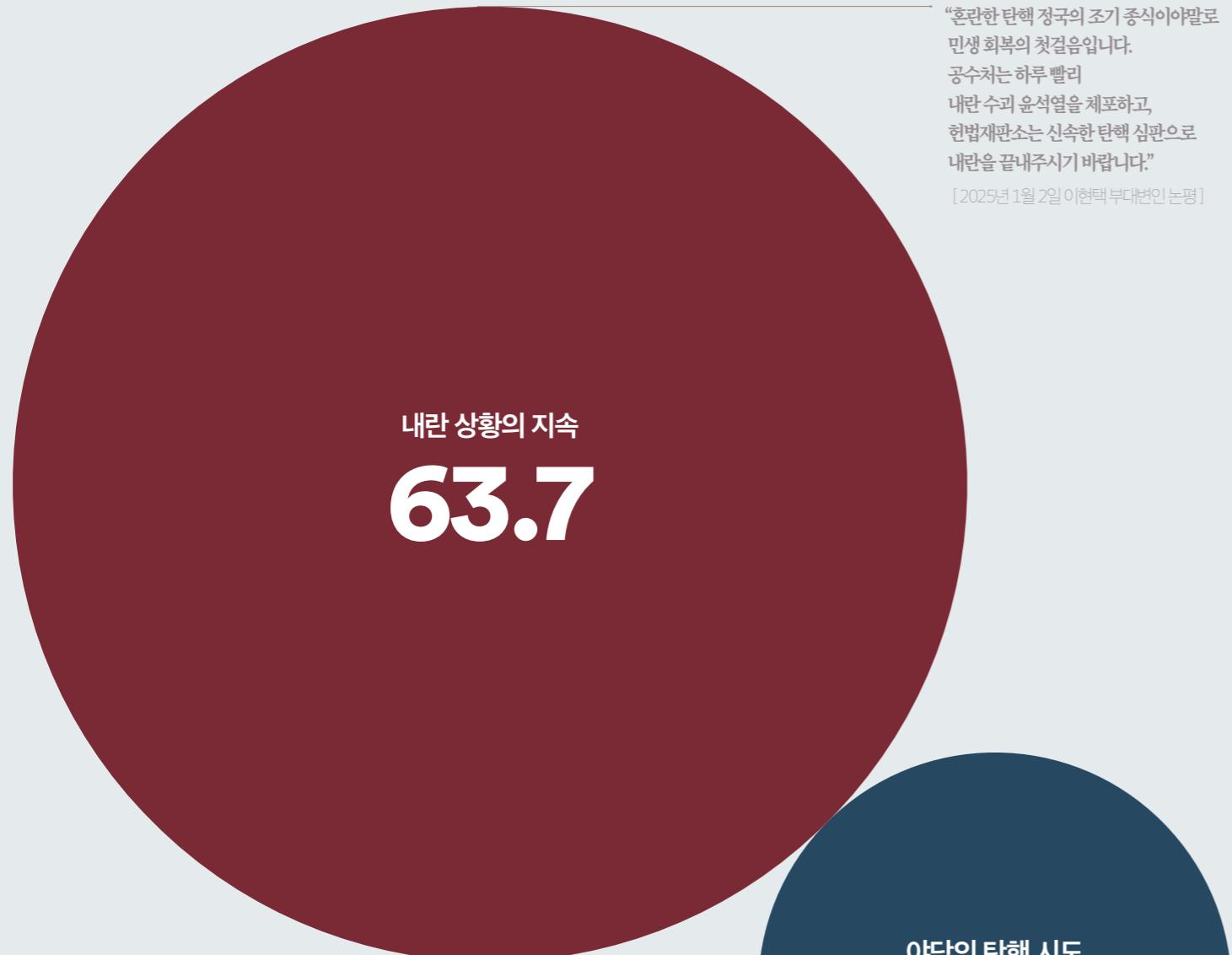
서울	60.1	30.4	9.6
인천·경기	61.6	26.4	12.0
대전·충청·세종	58.2	30.2	11.6
광주·전라	73.1	23.0	3.9
대구·경북	35.5	35.9	28.6
부산·울산·경남	46.9	32.9	20.2
강원·제주	54.2	27.8	18.0

3인 모두 임명해야 한다

1명은 유보해도 된다

잘모름

Q. 현재의 경기침체와 정국혼란의 원인이 다음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협박정치에 현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혼란이 수습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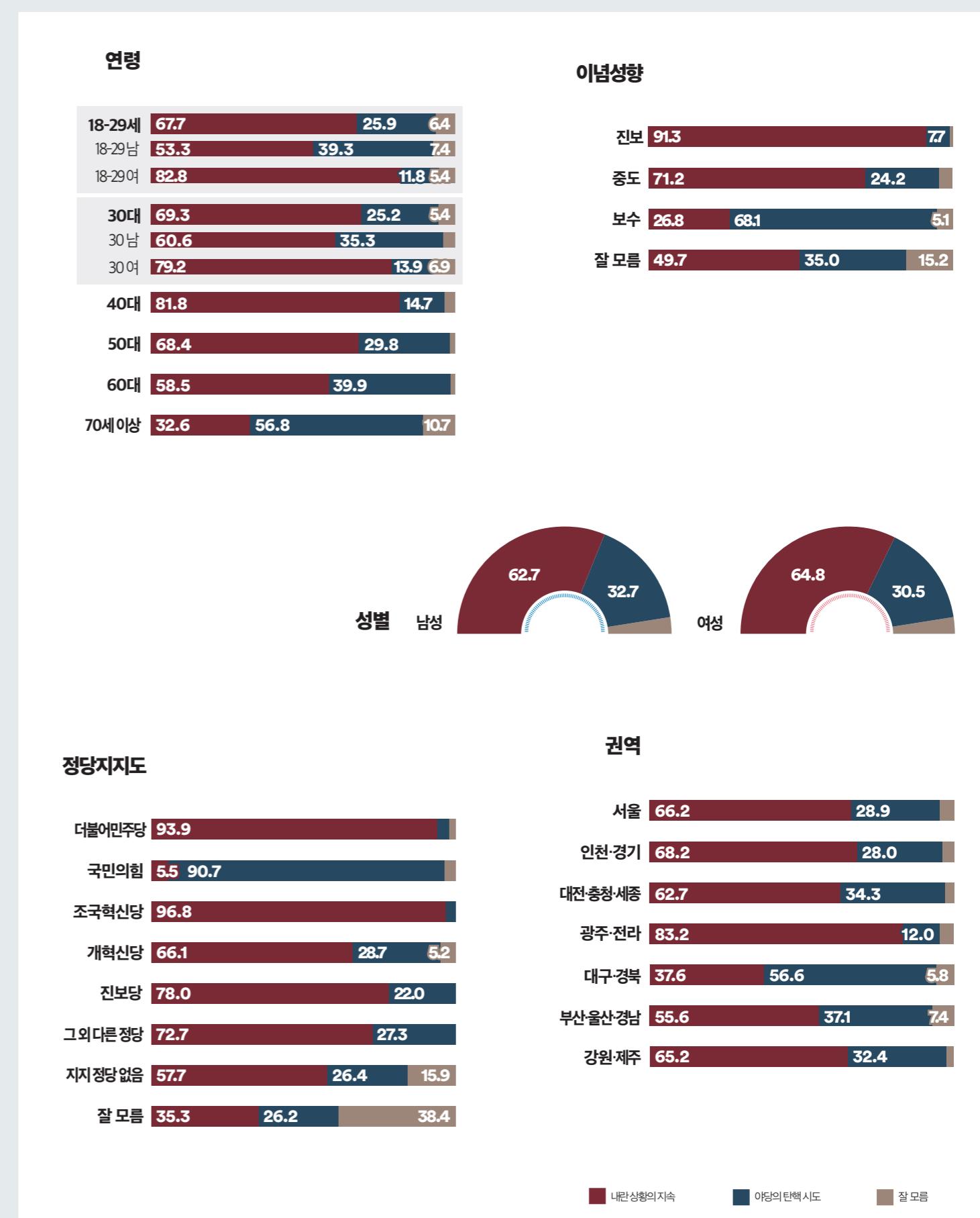
[2025년 1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경기침체와 정국 혼란의 원인이 '내란 상황의 지속'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격차: 32.1%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별 응답층에서는 '내란상황의 지속'이 침체와 혼란의 원인이라는 응답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야당의 탄핵 시도'가 침체와 혼란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우세

“혼란한 탄핵 정국의 조기 종식이야말로  
민생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공수처는 하루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내란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이현택 부대변인 논평]



WWW.  
FLOWERRESEARCH.  
COM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WR\_202501\_01

---

여론조사 